

이 강의를 저의 선생님

Theodore Runyon 박사님께 바칩니다

제가 강의를 잘 해서가 아니라, 이 강의의 기본적인 흐름-방향이 그의 신학사 이해에 크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는 Göttingen University에서, Friedrich Gogarten 지도 아래, Paul Tillich 연구를 논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.

Friedrich Gogarten는 Ernst Troeltsch (관념적 역사를 중심에 둔 헤겔과 동시대 인물로, 실제 역사 준중의 신학자) 사상의 계승자입니다. 그런 시각에서 저는 트뤼취의 제4세대(트뤼취 - 고가르텐 - 러넨 - 홍정수)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“신화적-관념적 계시”가 아니라, “속세의 인간 역사”가 신과 예수를 만나는 장입니다.

다른 한편, 윤리학자 Richard Niebuhr도 트뤼취 연구-전문가입니다. <그리스도와 문화>라는 고전적 명저는 트뤼취의 “종파적 교회Sect와 (기성) 교회 Church”라는 유형론의 발전입니다. 그리고 니이버의 윤리 사상은 그의 제자 E. Clinton Gardner 교수를 통하여 저에게 전수되었습니다(저는 지금도 사교의 “유형”을 아직도/그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). 즉 저의 부전공 편을 봐도, 저는 트뤼취 제4세대(트뤼취 - 니이버 - 가드너 - 홍정수)입니다.

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<역사 의식>이 생겨나기를 빕니다.

Emeritus Professor Dr. Runyon and his wife, Cindy

